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조원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후 2:00~7:00 (토·공휴일 5시까지, 주일 휴진)
원장 송 창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31-2
Tel : 02)2264-8822 · 8833
Fax: 02)2264-8833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사장 : 소진우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대표전화 : 02-741-0031 www.JTNTV.kr (JTN방송) 2010년 4월 11일 주일 [제29호]

디어스영성
순교자무리의 연합체 / 디어스영성찬양신학연구원
The Earth Holy Voice Seminary
전화 : 02)3273-4001 / 010-9343-5652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23번지 www.temmkorea.com

부활절 '화해와 평화, 공동체성 회복' 다짐

"한국교회 예수부활 기쁜 소식으로 삶을 향한 소망 · 기쁨 회복되길 기원"

2010 시청앞 새벽 5시 부활절 연합예배 사진/심석환기자

축도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설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2010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가 주일 새벽 서울을 비롯 전국 70여개 시 · 군지역에서 개최됐다.

새벽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드려진 2010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올해 101세를 맞은 방지일 목사가 부활 절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대규모 성만찬에서는 이정익 목사(신촌교회)와 서재일 목사(원주영광교회)집례로, 백석예술대학교 합창단. 오케스트라의 찬양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김운태 목사(한기총 총무)와 권오성 목사(NCCK 총무)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NCCK가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고,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권사, 유인촌 문화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계안 전 의원, 김충환 의원, 나경원 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편 부활절을 맞이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2010년, 기독교 각 기관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우리 민족 전체에 화해와 평화, 기쁨의 메시지가 되길 희망했다.

"오늘 한국교회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권오성 총무(NCCK)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화해와 통합,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사명과 말씀을 성도들과 교회에 주셨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도 '화해'를 강조하며 '화해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광선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셨다"며 "오늘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사설

우린 모두 공범자다

이청준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밀양密陽secret sunshine'이라는 작품이 생각난다, 제목이 한자가 의미하는 대로 '밀양密陽secret sunshine숨어있는 태양'이다. 주인공 신애라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 경남 '밀양密陽'으로 내려간다. 마음을 다잡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열심히 산다. 서울에서 내려와 학원을 지을 땅을 보러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돈 많은 여인으로 주변의 이목을 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친목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납치되어 사라졌다. 범인의 요구대로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지만 아들은 이미 살해된 뒤였다.

정신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다 어느 날 마지막 실오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교회에 나간다. 위로와 평안을 얻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결심 끝에 감옥에 있는 범인을 찾아가 아들을 죽인 그를 용서하라라 하고, 면회를 간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위로와 평안을 찾았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러 왔습니다' 의외로 평온하고 담담한 그는 '저도 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피해 당사자인 내가 용서를 안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나에게 사죄를 안했는데, 누구에게 사죄했단 말인가? 신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감옥에서 나와 실신해 쓰러지고만다.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숨어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invisible God, hidden God, silent God이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초신자가 된 신애가 이해 할 수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너무나 깊고 높은 뜻과 섭리다.

우리의 사사건건 만사에 대답을 주시지 않는 숨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다. 큰 마음먹고 죄인을 용서하러 간 신애는 이미 용서 받은 범인에게서 자기의 용서의 주권을 빼앗긴 박탈감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를 용서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드리지 못한다. 근간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린 모두 공범자'라는 사실이다. 사건을 저지른 자만 죽일놈 하지만, 우린 항상 돌을들고 치려는 심판자들이다.

우리가 범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가? 두 살 난 김길태를 길바닥에 버린 게 누군가? 그를 그렇게 키우고 가르친 게 누군가?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그를 심판하고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다. 오늘 날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공범의식, 죄인의식을 느끼며 가슴치고 회개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2천 년 전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려는 살기등등한 바리세인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악한세상과 자식을 잘못 가르친 기성세대, 부모들이 가슴 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같은 문제를 놓고 대응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성숙한 사회냐? 아직도 후진적 사회냐? 의 판가름의 척도가 된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우린 모두 공범자일 뿐이다.

박영남〈세계선교사 협회 총재, 건국대 교수〉

부활절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

담임 소진우 목사 (본지 사장)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지저스타임즈 독자들의 모든 교회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궁한 희망과 기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 주셨습니다. 겨우내 잠자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봄의 전령사인 꽃들이 활짝 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같이 과연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겨울의 차가움과 무거운 대지의 압력을 이기고 돋아난 새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겼으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한 것으로 심겨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겨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겼으나 다시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 11:25-26)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야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마다 부활의 신앙과 축복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릎으로 말하고 무릎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기적의 부활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祝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2010부활절 감사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한복음 11:25-26절)

총회장 성흥경 목사 |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 서기 김춘택 목사 | 부서기 조광표 목사 |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 | 부회의록서기 고영전 목사 | 회계 허성인 목사 | 부회계 정일량 목사 | 총무 신언창 목사 | 감사 전현구 목사 | 감사 이일영 목사 | 감사 정창갑 목사

웨신총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 전화 : 02)835-2606-7, 팩스 02)835-2608
홈페이지 http://ws21.kr | E-mail:ok@ws21.kr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제2차 정기예배 드려

국가 · 민족 · 세계경제발전 위한 특별기도회 성황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회장 권영자 목사)는 3월 29~30일 1박 2일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10년 고난주간을 맞아 제2회 정기예배 및 나라와 민족 · 세계경제발전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첫날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박현희 목사(강원양구지부회장)의 기고가 있었으며, 최선희 목사(대구2지부회장)는 성경말씀(롬16장 3~5절)을 봉독하고 이현미 교수의 지휘, 권미나 교수의 반주로 합창단의 "다 감사드리세"라는 특별찬양과 임한빈 교수 부부는 이중창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는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설교에서 김의환 박사(한기여총 고문)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박현주 목사(동 여총 부총재)가 봉헌기도를, 채지우 교수 외 6명이 "기쁨의 춤"이란 주제로 위십 찬양을, 지덕 목사(동 여총 고문)가 격려사를, 동 여총 실무단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곡을 축가로 불렀다.

이어서 제2부 특별기도회가 시작되어 1)나라와 민족을 위해 송복순 목사(대전동부 지부회장), 2)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김옥순 목사(서울양천지부회장), 3)세계나눔복지재단을 위해 박은혜 목사(대구지부회장), 4)선교와 구제에 힘쓰기를 위해 이나단 목사(서울용산 지부회장), 5)한기여총 전국지부회장을 위해 이형옥 목사(전북고창 지부회장) 등이 기도했다.

이어 박인순 목사(경기화성1 지부회장)의 한기여총 선서낭독이 선창되었으며, 박숙희 목사(실무회장)가 인사 및 광고를, 김의환 박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3부에서는 동 여총 회원들의 설교대회가 있었으며, 원인환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특송이 이어졌다. 또한 정봉순 고려대 교수의 지도아래 레크레이션을 가졌으며, 선물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가정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30일(화) 새벽, 새벽예배와 각자의 기도 시간이 주어졌으며, 오전 9시30분 제4부 폐회예배가 드려지고,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마련된 시상식을 가진 후 한기여총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매 2개월에 한번 열리는 한기여총 정기모임은 5월 논산 만복수양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서문 낭독

예배를 마친 후 단체촬영

"고귀한 희생 헛되지 않게 구조에 총력을"

한기총 이 대표회장, 고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 · 유족 위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천안함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회장 고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하고 유족 위로

이 대표회장은 4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성남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입관식을 방금 마치고 나온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화하고 "가슴이 막혀 위로할 말이 없다"며 "고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순직을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천안함 실종자들의 구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조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만나 "한기총은 어제 저녁에 실종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 졌다"며 "신속한 구조 및 사태수습과 더불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독교계과 종교계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생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정부와 군은 촌각을 다투는 생사의 기로에서 애를 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부상자의 치료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에는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와 사무총장 정연택 장로 그리고 인권위원장 김양원 목사가 수행했다.

전태식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최선 다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4대 총본부장 · 대표회장 · 총동문대표회장 취임식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우) 이경은 목사(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팔을 걷어붙인 신임 대표회장 등 취임식이 지난 3월 26일 오전11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전태식 목사)에서 거행되어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는 총본부장 김영남 목사,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 총동문대표회장 노수우 목사를 추대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조범식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이기안 목사(본부장)의 기도와 조유식 목사(본부장)가 성경봉독을,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정인찬 목사(국제대표회장)가 "복음의 영향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정 목사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서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민족의 국경을 넘어서서, 민족복음화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효은 목사(부총재)사회로 특별 기도회에서 박영길 목사, 최동호 목사, 이만석 목사, 이주형 목사, 정덕훈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으며, 심중섭 목사가 봉헌기도를, 김선희 전도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또한 취임 및 축하를 위하여 설동욱 목사(부총재)가 취임기도를, 총재 이태희 목사가 인사를 했다. 이 목사는 이 민족에 한 획을 긋는 단체가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복음화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합심하여 맡겨진 사역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또 유순임 목사(여성 대표회장)가 환영사를, 안만광 목사(상임총무), 조성권 목사(본부장)가 취임자 연혁을 소개했으며, 총본부장 김영남 목사는 목사 된 것도 감사한대 총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분까지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것을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귀한 대표회장 맡겨주셨으니 목숨 바쳐 순종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총동문회장 노우수 목사도 부족하지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인호 장로(법률지도위원)가 축사를, 백경명 목사(부총재)가 권면을, 김용실 목사(고문), 김원철 목사(부총재)가 격려사를, 총재 이태희 목사가 취임 공로패를 전달하고, 임성은 목사(사무총장)가 해외대표 유봉호(일본), 전대구(필리핀), 박건철 목사(워싱턴)를 소개한 후에 김성숙 목사(여성사무국장)가 광고를, 이태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또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4월 22~23일까지 청원초대교회에서 본부장 및 임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매월 민족복음화를 위한 지역성회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2010년을 전국 도 본부 및 시, 군 지역본부 조직과 해외 지역본부 확장에 더욱 힘써 2011년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2012년에 "리바이블 77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2017년 "77 민족복음화 대성회" 40주년을 행사를 북한 복음화성회 및 세계민족복음화대성회를 목표로 전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 취임과 기념촬영

부활절 '화해와 평화, 공동체성 회복' 다짐

/1면에 이어

또 이 대표회장은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편리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기애를 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이신 모범을 따라 그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을 결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 또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와 미래목회(대표 김인환) 등도 화해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한국교계 각 교단과 기관에서도 잇달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는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으며, 부활의 믿음 없이는 구원의 영광도 없다"면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삶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라"고 인사했다.

또 예장통합 총회장 지용수 목사는 "돌무덤 속의 깊은 어둠과 절망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오늘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이 될 것"이라며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사회의 낮은 곳으로 찾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장 총회장 김현배 목사 역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부활절 메시지로 전했다.

김 목사는 "부활 아침에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들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며 "한국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온 삶으로 증언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지치지 말고 새로운 용기로 세상을 향한 희망, 생명, 믿음의 공동체로 부활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대전 한사랑교회 김윤수 목사 취임예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사랑교회는 지난 3월 21일(주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소재에서 동 교회 이전 및 담임 김윤수(사진)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전종열 목사(치리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오병열 장로(대전중앙지방회 부회장)의 기도와 임종필 목사(동 지방회 서기)가 성경 마 7장 13-14절을 봉독하고, 김승천 목사(동 지방회 회장)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지방회장 김승천 목사는 김윤수 목사를 한사랑교회를 담임하는 치리권을 부여하고 공포했다. 또한 사회자 전종열 목사가 취임하는 김윤수 목사를 소개하고, 김준호 목사(대광교회)가 권면을, 오두환 목사(산성교회)가 축사를, 원지혜씨의 축가와 담임 김윤수 목사가 답사를 했다. 아울러 신구현 목사의 광고를, 박양우 원로목사(한사랑교회)축도로 마쳤다.

이날 담임으로 취임한 김윤수 목사는 1969년 충남 삽교 출생으로 대전 동산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B.A),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여 2000년 경인지역총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아 주안교회, 은강교회, 대전서문교회, 목포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이정미 사모와 아들 용현군이 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조용기 목사

울주군민에게 희망과 꿈 전달

언양초등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사랑 나눠

조용기 목사(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가 울주군 한성준 경제복지국장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용기 목사)은 2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부리 언양초등학교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축제가 열렸다.

언양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긴급생활지원 24가정, 주택개보수 12가정, 4곳의 소규모시설에 식기소독기, 에어컨, 대형TV 등을 후원하며 지역주민들과 사랑과 행복을나눴다.

이어진 전달식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울주군 한성준 경제복지국장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이도웅 교장에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허동진 장로회장은 도서관에 PC10대와 서가를, 김경문 목사는 제자교회 담임목사들이 준비한 대형TV를 이도웅 교장에게 전달했다. 김덕중 자원봉사단장은 언양초등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기념품을 전달했고, 김창면 장로는 꿈동산지역아동센터, 삼동경로당 외 2곳의 소규모시설에 식기소독기, 에어컨, 대형TV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어서 열린 준공식에서 조용기 목사는 "성경은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서 "잠언 말씀처럼 초등교육은 인생의 기초를 놓는 일과 같아서 평생 그 사람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에 어린 시절 바른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양초등학교 이도웅 교장은"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자 도서관 이름을 사랑 행복 도서관으로 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사장 조용기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허동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장, 박맹우 울산시장, 강길부 국회의원, 신장열 울주군수, 울산시 김상만 교육감, 울산 강남교육청 정연주 교육장 및 김경문 여의도순복음중동교회 목사 등 제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본 재단은 2억 5000만원을 들여 260㎡의 도서관을 리모델링, 자료검색실과 멀티미디어실을 갖춘 최신식 도서관을 만들었으며,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아이들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울주군의 2개읍, 5개면에서 모인 주민들은 건강검진을 비롯한 마을축제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323명의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120여명이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했고, 그밖에 체험프로그램(떡매치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건강체험부스)과 먹거리코너(부침개, 떡볶기, 솜사탕, 국수, 바비큐 등), 어른신들을 위한 레크레이션도 이어져 풍성한 지역축제 한마당이 됐다. 안과검진을 통해 52명의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단은 수술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암이 의심되는 간경화 환자를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재단의 '사랑과 행복 함께 나누기' 행사는 광주, 전주, 태백, 영덕, 괴산 등에 이어 9번째며, 앞으로 경기도 동두천 등 5곳 이상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광철 목사, 생명의 빛 교회 설립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중앙노회(노회장 손찬헌 목사)의, 정광철 목사는 지난 3월 20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생명의 빛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딤전3:15)을 주제로 설립예배를 드렸다.

중앙노회 서기 양현모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부노회장 김병호 목사가 기도를, 인도자가 성경말씀 여호수아 1:1~9절을 봉독, 오세길 성도가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노회장 손찬헌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노회장은 생명의 빛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설립예배를 드리는 정광철 목사와 가족,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윤정순 사모의 특송과 회계 손성규 목사가 봉헌기도를, 노회장 손찬헌 목사는 본교회의 설립을 공포하고 정광철 목사를 파송했다.

아울러 증경노회장 윤동남 목사가 축사를, 증경노회장 김용진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이어 정광철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증경노회장 임칠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설립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시론

성폭력 '共犯 국회' 안 되려면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수감자에게도 제한적 법 위에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9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은 20여건이나 된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같은 흉악 범죄가 재발해야 비로소 서랍을 뒤지니 정치인들의 무책임이 하늘을 찌른다.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도 범행 발생이아니라 범인이 기소돼 구형 받는 시점이 기준이어서 소급적용이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성범죄 전과자는 '걸어 다니는 흉기'로 간주된다. 전자발찌 시행 1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가운데 1명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는 그 정도로 예방효과가 크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수감된 성범죄자는 출소 후 아무런 감시수단 없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가 바로 그런 경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을 이번 국회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전자발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사창가 단속 이후 성범죄가 크게 늘고 특히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희생자가 될 거란 우려가 컸다. 요즘 잦아진 아동 대상 성범죄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8년 예슬 혜진양과 작년 조두순 재판의 경우처럼 사건이 나면 온 나라가 범인 공개처형이라도 요구할 것처럼 야단을 떨지만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고 만다. 대신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법정 형량을 크게 높이고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없는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광남교회 새 성전 봉헌,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

대지면적 532평을 구입 건축면적 179평 연면적 450평 위에 광남교회를 건축하고 지난 3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576-9 소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집을 채우라"는 표어아래 새 성전을 입당봉헌하고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 말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본 교회 신의태 목사와 온 성도들이 많은 축하와 격려로서 축복받는 자리에 담임 신의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김주현 장로(남선교회 연합회장)가 기도를, 이우철 목사(서울서남교회 서기)가 성경봉독를, 류철량 목사(부천동광교회)가 "노아의 방주"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광현 장로(건축위원장)의 건축 경과보고와 본 교회 성도들은 담임 신 목사에게 교회열쇄를 증정했다.

또 신 목사가 봉헌을 선언하고 성전건축에 혼신을 다해 헌신봉사한 건축사와 건축위원들에게 공포패 전달이 있었으며, 이효선 광명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당회장 신의태 목사가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서약하고 이선균 씨를 장로로, 이선균 씨가 장로로, 박진택 박한근, 오경호, 정해승 씨를 안수집사로, 김선순, 배미숙, 홍승주, 이영숙 씨를 권사로, 최정숙 씨를 명예권사로 세우고 공포했다.

이날 고익종 목사(흰돌교회)가 권면을, 조재호 목사(고척교회)가 축사를, 대학합창단 동문들의 축가가 이어지고, 당회장 신의철 목사의 임직패 증정과 기념품 증정에서 임직자가 교회에, 교회가 임직자에게, 노회연합기관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 연합기관대표 등의 선물교환이 있은 후, 변헌웅 장로의 인사 및 광고를, 이 현 목사(수암산수도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 www.JTNTV.kr JTN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cupress-1@hanmail.net jgn88@paran.com
▶전화 : 070)8230-0032, 0034, 02) 팩스: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 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祝 부활

세계치유선교센터
(www.twhmc.kr)

원장 민충만 목사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JTN방송, 본지 부사장)
매일치유집회 2회 : 오후 2시 / 밤 9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4-4
(태희프라자 3층)
대표전화 : 032)329-9182
010-9282-5873, 010-8376-2476

▶부천전철역(북광장)에서 셔틀버스 수시운행
▶부천 소풍터미널 셔틀버스 수시운행
셔틀버스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니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치유선교센터 개원예배 기념촬영〉

공 고 문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3월 22일자로 총회에 행정거부 및 행정보류를 하고 3월 27일 임시노회를 통하여 본 총회탈퇴를 결의하고 사실 통보한 남서울 노회는 본 총회와 무관함을 공고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피종진 목사 4월 국내 · 외성회 일정

❖2(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2(금)~ 3(토) 부천 세계치유선교센터(원장 민충만 목사) ☎(032)329-9182

❖4(주일) 오후 부활절연합성회, 주최 : 용인구성기독교연합회(대회장 윤호균 목사), 장소 : 칼빈대학교(총장 길자연 목사) 광장 ☎(031)284-4752 제158차 해외성회(158th Overseas Assembly)

❖5(월)~ 7(수) 일본(JAPAN) 동경 그레이스교회(신현석 목사) ☎090-8566-1019

❖8(목)~11(주) 중국(China) 복건성 샤먼한인교회(김관중 목사) ☎070-7565-8024

❖12(월)~14(수) 서울 온동내교회(정판순 목사) ☎(02)2214-7104

❖15(목)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031)947-0091, 주최 : 조국평화통일협의회(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18(주)~20(화) 아프리카(Africa) 가나한인교회(고경철 목사) ☎(233)2220-3927

❖21(수)~23(금) 아프리카(Africa) 케냐 나이로비 제25회 전세계목회자세미나 ☎(718)886-4040, 장소 : Safari Park Hotel Nairobi Kenya

❖26(월) 오후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연합성회

❖26(월)~29(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27(화) 오전 서울 동아교회(강창훈 목사) 목회자사모세미나 ☎(02)2690-0314

❖30(금)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전국남전도회연합회(대표회장 황정심 장로), 장소 : 단양 대명리조트 ☎1588-4888

국제선교신학연구원
(주님의교회)
담임 박현주 목사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67-6
♥향상친절한 전화상담
042)847-4711 / fax 841)4700
♥H.P 011-6755-1175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010-4436-7060

祝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길교회

담임 이상락 목사
(본지 대구 경북지사장)

대구시 중구 하서동 28-1
(아미고호텔 20층)
전화 053)628-3689
H.P 017-816-0889
말씀사랑기독교서점
(사대부고 맞은편)
대표 송숙희 사모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187-33
전화 053) 422-0889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본지,JTN방송 상임이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3-64번지
전화 02)804-0126
H.P 011-357-0690

대한예수교장로회 비전교회

담임 손찬현 목사
(중앙노회장
본지 운영이사)

(예수사랑선교예술단)
www.pumba.kr

서울시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987-1
(신월시영A 상가 3층)

전화 02)2608-0231,
H.P 011-497-4577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전현구 목사
(본지,JTN방송 상임이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91-7

전화 041)356-0688
019-410-0688

대한예수교장로회 은광교회

담임 이원석 목사
(본지,JTN방송 상임고문)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3동 53번지
현대상가 3층 301호

전화 02)2245-8767, 8766
H.P 017)717-44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선일장로교회

담임 박주성 목사
(본지 전북 전주지사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8-11

전화 063)241-9182,
242-0134
H.P 017-816-0889

한사랑교회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담임 김윤수 목사

대전시 서구 도마1동
129-16

전화 (042)321-7340
H.P 010-2872-4357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 양송섭 목사
(본지 중부지사 상임총무)

대전시 서구 도마1동 51-28

전화 042)532-3622
H.P 017-816-0889

대한예수교장로회 지구촌교회

담임 이홍규 목사
(웨신 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322-33

전화 02)845-3376,
848-3376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담임 정일량 목사
(본지,JTN방송 운영이사)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02-1 9층

전화 032)812-7773
H.P 010-4274-3330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본지 강원지사장)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전화 033)242-4280,
255-2205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송주창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송주창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신화1리 1071-1
전화 031)356-3997
H.P 016-769-3997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성노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25-9

전화 02)839-9198
H.P 010-9492-1770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인노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1-1(보경B/D2층)

전화 041)976-8261
H.P 011-2972-7859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중노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이기식 목사
(총회 회의록서기)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920-46

전화 02)804-4488
H.P 010-3240-4713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

노회장 장창윤 목사
(본지 이사회 사무총장)

노회장 장창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전화 02)862-3181, 8191
H.P 010-5678-995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노회

노회장 조광표 목사
(본지 목포지사장)

노회장 조광표 목사
(총회 부서기)외
노회원 일동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

전화 061-274-1808
H.P 010-2940-161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동서울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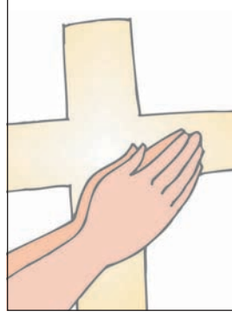
노회장 이병만 목사

노회장 이병만 목사
(주향교회)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44-3 3층

전화 010-3350-2155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노회장 정승룡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836W.8th St.#101
Los ANGELES ca 9005

전화 213-365-2915
213-200-2592

(본지 운영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허성인 목사
(총회 회계)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2층

전화 02)387-3462
H.P 010-4270-3462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김춘택 목사
(총회 서기)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전화 032)342-0259
H.P 010-4166-2307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고영전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고영전 목사
(총회 부회의록서기)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4-107

전화 02)948-6461
H.P 011-9115-6461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노회

노회장 손찬현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손찬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49-57
성은빌라 402호

전화 02)2608-0231
H.P 011-497-4577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

노회장 하종우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하종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42-17

전화 031)692-2571
H.P 010-2740-1571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 전명철 목사
(본지 운영이사)

노회장 전명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7-2

전화 02)032)346-5488
H.P 4945-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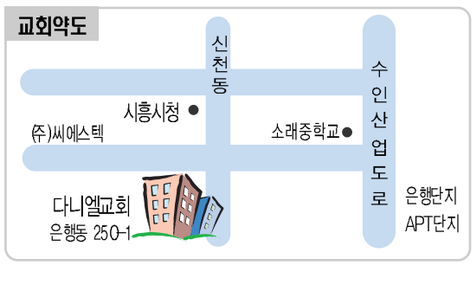
祝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사단법인 기독교 교단연합회

대표회장 김동권 목사

이사장 김용진 목사

사무총장 이상철 목사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48번지
미성상가 308호

대표전화 : 02)565-2264

Fax : 02)389-2634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 · 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장기요양기관 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89-8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 H.P 010-7405-9191

원장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정예배

소 진 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 본지 사장

주의 장막 안에
성경 : 시편15편 찬양 : 442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라고 다윗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와 정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라야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처럼 주의 장막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영영히 요동치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밖에 없습니다.
성경 : 시편16편 찬양 : 430장

시편 16편은 시편에 나오는 일곱 편의 메시야 예언시의 하나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복락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여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본문 2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처럼 다윗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알고 극한상황 속에 있을 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성경 : 시편17편 찬양 : 484장

시편17편은 신앙 때문에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귀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는 늘 응답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가정마다 문제를 만나거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 : 시편18편 찬양 : 393장

시편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시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지난날을 돌아보니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지금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위기와 시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기와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 되자
성경 : 시편19편 찬양 : 505장

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구수하게 더 깊은 맛을 냅니다. 곰팡이도 피지만 그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는 가정
성경 : 시편20편 찬양 : 442장

본시는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한 시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행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베푸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죄악 세력에맞서 싸우는 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줄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는 승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승리 그 이후에도
성경 : 시편21편 찬양 : 307장

본시는승전 후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한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는 일차적으로 다윗 언약에 입각하여 다윗 자신이 항상 대적을 물리치며 그 가문을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문제 앞에 낙망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도전으로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오늘 다윗처럼 환날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마침내 승리의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 울수록 좋다.
성경 : 시편22편 찬양 : 359장

본시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언한 메시야 예언시입니다.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초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의 본시는 메시야께서 자기백성을 위하여 당하실 수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호소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도움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면
성경 : 시편23편 찬양 : 442장

다윗은 시편23편을 통해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성경 : 시편24편 찬양 : 28장

본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을 기념하여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24편을 통해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임을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입니다. 누에게 의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복과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성경 : 시편25편 찬양 : 539장

본 시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 라는 것은 '소망을 두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다윗처럼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성경 : 시편26편 찬양 : 391장

본 시는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시 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여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성경 : 시편27편 찬양 : 388장

본 시는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비탄시 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입니다. 우선 다윗은 1절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즉 여호와는 나에게 '빛' 이요 '구원' 이시오 '생명'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와 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선포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오늘 이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유권
성경 : 시편28편 찬양 : 340장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복과 구원을 9절을 통해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특히 다윗이 여기서 '주의백성' '주의 산업'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가정역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문제 앞에 낙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칼럼

우리의 마음이 물의 결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

1. '눈(雪)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는 사실에 착안한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눈(雪)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면물의 결정도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현미경을 이용해 다양한 물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 말을 들려주거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물 결정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손에 잡힐 듯이 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랑과 감사' 라는 글을 보여 주었을 때, 물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나타냈습니다. '악마' 라는 글을 보여주었을 때에는 중앙의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었지요.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을 들려준 물은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결정을 보여주었으며, 쇼팽의 '빗방울' 을 들려준 물은 정말 빗방울처럼 생긴 결정을 나타냈고, '이별의 곡' 을 들려준 물에서는, 결정들이잘게 쪼개진 형태가 되어나타났습니다.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을 들려주든, 어떤 음악을 들려주든 물은 그 글이나 말이나 음악에 담긴 인간의 정서와 느낌에 상응하는 결정의 형태를 보여주었지요. 즉 우리가어떤 마음을 갖는가에따라 물의 결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의 70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발견은 우리에게매우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 예전에는 막연하게만 알아왔지만,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진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직접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정신의학박사 주비에타가 '메디컬 트리뷴지' 에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에게 생리 식염수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이라고 하며 주사했더니, 환자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 덕분인 것이지요.

플라시보 효과란 '위약 효과' 라고도 불리우 것으로 어떤 믿음을 갖는가에 따라 가짜 약이 진짜 약처럼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그냥 단순한 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물은 '기적의 물' 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祝 부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 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 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 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 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 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 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 당	철야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가정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 간	장 소	대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19~24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25세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aurch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09-10
TEL. 031-384-68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담임목사
조 광 표
(전남 · 목포지사장)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 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 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석교회

성흥경 목사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 담임 …
성흥경 목사(웨신, 총회장)
성용구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99-4
☎031)204-5580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명교회

담임 정재진 목사
(본지 실무이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A 407동 1509호

전화 02)932-4144
H.P 010-6204-7358

칼럼

목회자가 알아야할 교회 법률(敎會法律)〈2〉

이원석 목사
(본지 상임고문)

3. 委員會 審査의 原則

위원회(委員會)란 최종적 의결기관인 전체회의의 예비적(豫備的)심의 기구요, 준비적인 심의 기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위원이든지 위원회의 결의를 절대화하려고 드는 일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다.

혹은 그와는 정반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그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안건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막연한 질문과 토의가 끝없이 계속되는 일도 역시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일 수는 없다.

본회의가 의안을 능률적(能率的)으로 심의하되, 그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를 위해서 구성하는 기구가 바로 위원회의니, 그 위원회의 결정을 예심 한 그대로, 혹은 전권위원인 경우 임시 처결한 그대로 채용할 여부는, 오직 전체회의의 권한일 따름이다. 위원회란 이처럼 어디까지나 특수의안, 혹은 특정사건을 예심하기 위해서만 구성하는 전체회의의 종속기관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을수 있어야 하겠다.

4. 위원회(委員會)의 종류(種類)

각급 치리회가 활용하는 위원회란 대개 정기위원회와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가 있고, 그 종류(種類)와 직무(職務)는 아래와같다.

1). 정기위원(定期委員)

(1). 총계위원 : 대개 원, 부 서기가 위원이 되며, 총계관계를 관장한다.

(2). 공천위원 : 노회에서는 각 시찰장이, 총회에서는 각 노회장이 위원이 되며,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어 상비부원과 이사를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절차위원 : 회장과 서기가 이 일을 맡으며, 회의 절차를 작성하여 인쇄배부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지시위원 : 회기 중 회원에게 지시(指示)하는 일과, 또는 광고하는일을 맡기려고 회장이 자벽하며, 대개 회의장소가 된 교회의 젊은 목사나 장로에게 위탁(委託)한다.

(5). 결석사찰위원 : 불참한 회원 및 회의 중 조퇴(早退)하는 회원관계 사무를 맡아 보고하는데, 회장이 자벽한다.

(6). 천서 검사위원 : 서기 진이 예심 하도록 하며,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받고 부적당한 천서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앞에 보고하여 처결케 한다.

(7). 순교자 유가족 구제위원 : 순교자의 유가족을 힘써 돌보게 하려고 한다.

2). 특별위원(特別委員)을 (실행위원이라고도 한다)

정기위원은 상비위원(常備委員)이지만, 특별위원(特別委員)은 상비할 이유가 없다. 회의편의상 필요할 때만 설치하는 위원인데, "그 인원수와 권한은 총회가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개회 익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총회규칙 3장 14조)고 하였다. 그런즉 특별위원은 둘 때마다 그 권한도 결정해서 맡겨야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 권한(權限)이 결코 동일(同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특별위원(特別委員)들이 가지는 권한을 두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호칭(呼稱)한다.

[다음호에 계속]

(목회자가 억울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CC 어떻게 이해할까' 제12차 미래목회포럼 열어

각 교단 신학자들 WCC총회 참여 찬반 열띤 토론 성과 없어

(사)미래목회포럼은 WCC를 주제로 정기포럼에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개최 확정 직후 각 교단간의 목소리가 다양한 가운데 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WCC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예장통합 'WCC는 세계교회가 하나되는 기여로' vs 예장합동 'WCC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떠난 헛된 거짓'

(사)미래목회포럼(대표 김인환 목사)은 '한국교회, WCC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5일 오전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각 교단의 WCC에 대한 이해와 한국교회가 WCC 유치를 위해 좁혀가야할 의견 차가 분분하여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했다.

WCC 유치에 적극성 보이고 있는 예장통합 측 발제자인 영남신학대 박성원 목사는 WCC 총회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늘 함께 해온 에큐메니칼 교회"라며 "이제 WCC 총회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경험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성을 심화시키고 세계교회가 하나 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반면 예장합동 측 발제자인 총신대 문병호 교수는 총회를 지지할 수 없는 WCC의 신학적 오류에 초점을 두고 "성경적 에큐메니즘, 즉 진정한 에큐메니즘은 성경의 참 진리를 수립하고자 추구됐지만, 교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이기만을 추구하는 WCC는 성경의 진리를 떠났다"며 "교회의 정통 교리를 벗어나 있는 WCC는 신학 자체로 헛되고, 성경은 헛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여긴다"며 반박했다.

"양측 입장 팽배, 진지한 대화 없이는 WCC총회 참여 찬반 어려울듯"

양측의 이러한 간격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대립' 할 것이 아니라 '대화' 로 이런 의견차를 좁혀가자는 대안에 눈길을 끌었다.

성결교회 측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WCC 유치에 적극 나선 예장통합 측 입장과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예장합동 측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진지한 대화' 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WCC가 용공이며 혼합주의고 과격한 혁명사상이라 생각하고 갈라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자리에 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WCC 측이 천주교와 정교회, 공산주의, 타종교와의 대화는 잘하면서 개신교 복음주의자들과는 그렇지 않았던 역사적 과정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에서 WCC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WCC와 복음주의교회들간의 공통분모 찾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복음주의교회를 WCC에 참여시키기 원한다면 예장 통합측이 나서서 WCC가 이제 복음주의적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여기에 힘을 보태 달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중요한 것은 WCC 총회 찬반이 아니라, 양쪽이 모여 진지한 대화를 통해 WCC 정체성을 따지고 거기에 기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전 열린 개회예배에는 CBS이사장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예장합신총회장 임석영 목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찾아 축사했다.

이 예배에 설교자로 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광선 목사는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모습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WCC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설교했다.

/본지와 뉴스미션 공동 취재

각 교단 신학자들이 WCC를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고 있다.

세계는 '뉴노멀'로 가고 있다!

선진국은 스마트소비, 성장국은 명품선호

달러와 인민폐

지금 세계경제는 달러와 인민폐의 부침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를 확 바꾸어 놓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가 바로 '뉴노멀(New nomal)' 이다.

최근 코트라와 SERI가 펴낸 각종 보고서들이 한결같이 뉴노멀 트렌드를 국제시장의 대세로 지목하고 있다. '새로운 보편화' 라는 뜻의 이 용어는 2005년 미국의 벤처투자가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것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보편화' 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대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이 보고서들은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소비자들은 기존 고가, 고품격 위주의 소비패턴에서 중저가 소비패턴으로 급속하게 변모한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신 성장국가의 시장에서는 호화로운 고가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뚜렷한 대비적 '뉴노멀' 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불황기를 맞아 우리 주변에도 일명 '스마트 소비' 가 새로운 경향이다. 절약형 합리적 소비만이 불황을 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곁의 중국을 보라. 초고가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이 700달러가 넘으면 더 잘 팔린다고 한다. 이러한 대비현상이 바로 뉴노멀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인 글로벌 기업들은 이 뉴노멀에 입맛을 맞춰 자국 시장에서는 중저가품 위주로 공략하고 성장국 시장에서는 고가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저가품을 생산해 팔던 전략은 이제 당분간 고전할 것이라는 게 이 가설의 주장이다.

고가와 고급만을 생명처럼 고집하던 기존 명품 메이커들도 마찬가지로 뉴노멀 현상에 편승하고 있다. 패션업체 코우치,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 등은 이미 중저가 제품 생산에 돌입했으며 가격할인을 시도하는 명품업체들도 줄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합리적 명품(Affordable Luxury)' 전략이 그것이다.

이러한 2원적 뉴노멀 패러다임이 구축된 원인은 성장속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의 부자들의 소비심리 상태를 비교해 보자. 미국 부자들은 주머니가 두둑해도 점점 줄어드는 재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면서 스마트 소비를 택하는 반면 중국 부자들은 '내일 또 더 많이 벌면 된다' 는 생각으로 펑펑 돈을 쓰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장률 1%와 9%의 차이이다. 보고서들은 이러한 뉴노멀 경향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상 지속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뉴노멀은 '올드 노멀' 의 대비적 개념이다. 이 새로운 패턴은 바로 영미식 금융체제로 대변되는 구시대의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통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뚜렷하게 대두되는 또 하나의 뉴노멀 현상이 바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붕괴와 위안화의 급부상이다. 앞으로 이 두 화폐의 세력판도에 따라 세계가 다원화로 나아갈 지 미 · 중 이원화 체제 전개될 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뉴노멀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저성장과 통상마찰 격화, 자원확보 경쟁 등의 요인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적잖은 위기를 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신흥시장의 부상, 다변화하는 세계정세는 우리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저탄소, 녹색상품의 확산, 자원확보 경쟁의 치열한 전개 등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상의 뉴노멀이라고 SERI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동훈기자

祝 부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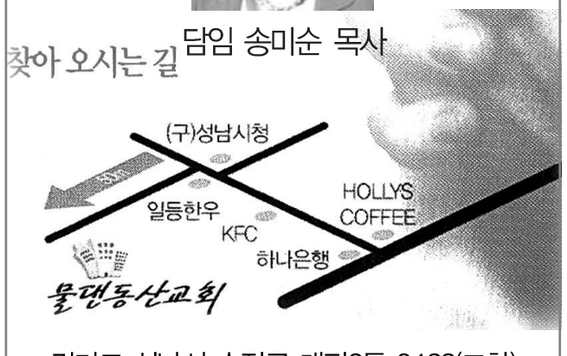
담임 곽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물댄동산교회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전화 : 031)765-9826, 010-9006-9155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울교회

담임 고승곤 목사

▶하나님의 손안에 -저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저자
▶국제연합신학연구원 교수
▶다바르 성경연구원 원장
▶마르튀스(Witess)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JTN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1-2 /B1
(쌍용A 1차 205동 후문 맞은편)
전화 02)408-9030, 011)9082-9030

대한예수교 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169-210 5층
전화 02)951-4331, 935-4611

말씀

부활이 주는 교훈

고린도전서 15 : 29-34

성흥경 목사
설교 웨신총회 총회장

2010년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모든 만물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무안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고전15:16)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작임을 보여 줍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로되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롬8:18) 현재의 몸은 약하나 장래의 몸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계21:4) 현재의 몸은 제한을 받으나 장래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몸이 될 것입니다. (요20:19)

2. 주님의 부활은 악과 선의 투쟁에서 선이 이긴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군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에 대항하여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후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을 때 선이 악을 이겼고 이는 악함은 잠시이나 선함은 영원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갈6:9)

3. 고난 후에 평화가 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요20:20-21)
예수님의 고난은 곧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사53: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이 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도 영광스러운 보상에 참여하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과 함께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은 자도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불구의 몸으로 살다가 죽은 자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역사적 사실이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주는 결론적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고

역경을 이기는 지혜

김수정 목사
서울구로경찰서
경찰교회 담임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말하는 것을 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처처에 지진과 기근 문자 그대로 엎친 데 덥친 격으로 불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라들, 지진을만난 중국 쓰챤성부터 아이티, 칠레, 대만 등(그 외에도 많지만) 혼란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신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도 과거(목사가 되기 전)에 몇 차례 사업에 실패 했었는데 사업의 실패가 오래갈수록 인생의 살아있는수업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비우고 닦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체험했다. 그러기에 지금의 경제적 불황을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장차 미래가 크게 성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닥쳐진 불황이나 고통의 순간들을어떻게 극복했을까? 발명가 에디슨은 너무나 공부를 못해서 선생이 그의 어머니를 불러 자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하며, 영국의 영웅 처칠수상은 소학교 졸업까지 지진아들의 특수반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 북한의 핵무기, 이란의 핵무기 때문에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이 핵폭탄의 원리도 핵폭탄을 만든 장본인 아인슈타인도 성적이 너무 나빠 모두가 그를 정신박약아로 취급하지 않았던가?
이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시킨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부족한 점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 성장 발전했다는 점이다. 불리한 환경이나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인류에게 남겨주었던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 등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부단한 노력을 하기를 권해보고 싶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만(Truman)은 대통령직을 은퇴하고 고향인 인디펜스에서 기거했는데 어느 날 트루만 기념 도서관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와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묻기를 할아버지께서는 저희들만 했을 때 인기가 있고 반장도 했겠지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손을 절래 절래 흔들며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였단다. 눈이 나빠 안경이 없이는 맹인처럼 앞을 볼 수 없었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으며 운동조차도 못했단다. 그리고 누가 큰소리만 질러도 부들부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나요? "응 말해주지. 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믿었지.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결코 매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했지 그리고 재간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어찌보면 그의 신념과 투지가 그의 미래를 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경제적으로 불황이었다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한다든지,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욕을 하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 분명히 자기 성찰을 할 수 없게 되며 불평을 하다보면 결국은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요즈음 필자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북쪽 동네의 새벽 별 보기 운동...등 등이 그들을 성공적 삶을 이끌지 못했고 최근 화폐 개혁도 잘살아 보자고 머리를 썼겠지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왜 북쪽의 나라가 역사의 바퀴를 뒤로 굴릴까 생각해 보니 참 안쓰럽기 짝이 없다. 분명 핵폭탄은 북쪽동네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진정 부요와 평강을 누리려면 트루만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핵을 빼면 더 큰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정말 서로가 원망치 않으며 서로가 불평치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 끝난 벤쿠버의 동계 올림픽도 세계 5위를 했던가. 정말 장하다.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과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보았다. 100년전 기독교가 언더우더와 아펜셀라의 선교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면서 학문도, 경제도, 스포츠도, 의술도, 점점 나아지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 정도는 불황이라고 장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있지않는가?
벤쿠버 금메달 6개가 다 중요했지만 특히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의 메달 역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결실이 아닌가? 김연아를 보더라도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는 바로 부단한 노력과 처해있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앙인 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할 때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 역경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밝고 아름다우며 희망찬 미래가 보장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원고 설교, 목회자 자신과 교인에게 유익함이 많습니다"

김기현 목사

"원고를 잘 썼다고 해서 감동적인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써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 자신과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유니온선교회 서서울지부 주최로 22일 오전 문래동성결교회에서 열린 '설교자를 위한 글쓰기 세미나' 에 주강사로 참석한 김기현 목사(부산수정로침례교회)의 말이다. 앞으로 '설교자 글쓰기 학교' 를 통해 목회자들의 설교 쓰기 훈련을 돕겠다는 그를 세미나 시작 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설교를 꼭 써야 하는 이유

김기현 목사는 설교하기와 설교 쓰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며, 설교를 써야 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목회자 자신과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라는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깊이와 내용에 충실한 설교를 접할 수 있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묵상과 연구, 기도에 헌신하게 됨으로써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김 목사는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쓰게 되면 기독출판계를 섬기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적으려고 하면 별 것 없는 설교와 마찬가지로, 한 번 읽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다시 볼 만한 값어치가 없는 책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강단에서 한 설교를 녹취해 그대로 옮기는 식의 설교집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나쁜 설교집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좋은 설교집이 많이 나와야 한다" 며 "목회자들이 설교 쓰기 훈련을 통해 좋은 설교집을 출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독서' 와 '칼럼 쓰기' 를 꾸준히 하라

설교를 쓰는 데 있어 김 목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독서' 와 '칼럼 쓰기 훈련' 이다. 그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평소 독서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며 "책을 깊이, 그리고 많이 읽을수록 설교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고 밝혔다. 김 목사는 독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 등에 싣는 칼럼도 설교 쓰기 훈련에 매우 유용함을 거듭 강조했다.
일반 설교문보다 짧은 분량의 칼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쓰다 보면 글쓰기 자체가 수월하고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인들과의 훌륭한 소통 수단이 되고, 교회의 비전을 확산 ·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며, 교육과 전도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목사는 설교의 일관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내용의 중복과 누락을방지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설교 쓰기에 앞서 개요를 꼭 작성할 것을 권유했다.

다음 달부터 '설교자 글쓰기 학교' 운영

김기현 목사는 앞으로 '설교자 글쓰기 학교' 를 통해 목회자들의 설교 쓰기를 보다 체계적 · 장기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성서유니온선교회 서서울지부가 주최하고 김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하는 설교자 글쓰기 학교는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매주 1회 서평과 설교 혹은 주보칼럼을 제출하면, 매월 1회 오프라인(교실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첨삭 지도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김 목사는 설교자 글쓰기 학교가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른 글쓰기 역량을 갖춘 기독교 작가군' 을 개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중소교회 목회자 그룹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나 맥스 루카도처럼 학문적인 지식과 평범한 일상을 말씀으로 이어주는 일꾼을 찾아보기 힘들다" 며 "설교자 글쓰기 학교가 신학적 지식과 언어 감각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들을 발굴 · 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뉴스미션

/울타리/

교회의 존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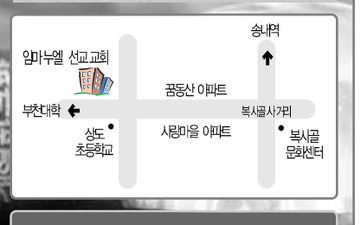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가면 시립병원 주위에 큰 부락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핵환자들인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게 되자 밖으로 나와 서로 의지하고살면서 판자촌을 형성한것이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들은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곳에실로암교회가 있다. 결핵환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고통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교회다. 세상에 내몰린 그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나누고 베풀며 지낸다.
신학생 시절 그곳에 종종 들르곤 했다. 그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며 찬양하고하나님께 기도했다. 가족마저 떠난 그들에게 실로암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었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왔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모인 병자들을 찾아가셨듯이 교회는 세상의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야 한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광호 목사(도봉감리교회)

祝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 현 병 우 목사
(본지, JTN방송 부사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한국기독교
한사랑회

회장 박남수 목사
(시온교회)

회장 박남수 목사(시온교회)
부회장 : 정춘모 목사, 이규인 목사, 전홍식 목사,
이항범 목사, 최충하 목사, 조성범 목사
총무 : 정비울 목사 부총무 : 서승원 목사
서기 : 임춘수 목사 부서기 : 신광수 목사
회록서기 : 조태영 목사, 부회록서기 : 신성호 목사
회계 : 강세창 목사 부회계 : 김해은 목사
감사 : 정해송 목사, 김동락 목사, 이재형 목사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3번지 정화빌딩 3층
회장 : H.P 018-256-0101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담임 오 종 설 목사
(본지 상임이사)

충남 홍성군 옥암리 952번지
전화 041)634-0441(사무실)
633-9146(목양실)
H.P 018-750-9146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 집중 / 말씀 집중 / 독서 집중] 특별집회
부흥회+전도집회+재직세미나+교사세미나+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확실한 동기부여
♡열정과 감동이 있음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건강칼럼 기독교상담과 성경적상담(1)

성경적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차이

김주원 박사
알코올 및 약물 전문 상담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일반인들이나 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의 말씀일 것이다.

하도 많이 들어서 혹은 교회의 교육속에 성경부분에 대한 장이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구절이기에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또 쉽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 있어서 이 성경구절 만큼 많이 읽혀지는 것 만큼 믿지 못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다.

디모데 후서 3장 16-17절에 의하면;"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만약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외에 다른 인간들의 사상이나 생각들 혹은 경험들을 첨가한다면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편기자는 19:7-8절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분명히 완전하고 또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우둔한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시편기자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사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 낼 수도 있고 또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과 경건에 속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들을 의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면 왜 사람들은 거기에 인간의 지혜를 첨가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우리의 삶과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자꾸 자신들도 모르는 지혜나 철학을 첨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자로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외에 다른 것들을첨가 할 수 없다.

기독교상담과 성경적상담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흔히들 같은 것이라고 구분없이 사용한다.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분명히 다르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밀가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밀가루인가를 구분하는 것 만큼 다르다.

누룩을 넣은 밀가루나 넣지 않은 밀가루가 겉모양으로는 비슷해보이거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도 빵을 만들거나 혹은 목적한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다면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기독 교상담(흔히들 크리스찬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하고 나름대로 상담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담을 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나 혹은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헛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합리화하고 합당화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꿰어 맞추기 위하여 학문(특히 심리학)이라는 미묘한 이름을 빌려서 그 위에 덮어서 정체를 모르게 만들기도 하려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마치 현대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안 하면 뒤떨어지는 교회 혹은 유명한 알파나 혹은 G** 뭐라는 것을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인 듯한 느낌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기도 하고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러한 단어들은 현대 교회에 나타난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새로운 신종용어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의 현대교회처럼 어떤 훈련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변한다는 가정하에 [아버지학교나 어머니학교 또는 상담학교등등]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변한 기록들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제자훈련프로그램]에 다니거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학교]등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자로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라는 말씀속의 단어들이 그들의 가슴과 심장을 쥐어 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진정한 제자로)들로 세웠다.

흔히들 개혁주의 기독교공동체의 프로그램들이 아닌 천주교나 혹은 힌두교 혹은 참선을 중시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져온 것들을 마치 기독교에 내려왔던 전통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 행위들을 "통합" 혹은 "합력"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혹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속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훈련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이후 2000년의 역사속에서 심리치유나 내적치유 혹은 정신치유라는 말이 없었어도 충분히 교회로서의 기능과 변화하는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이제 막 150년의 역사를 넘긴 심리학이나 기타의 학문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노략질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기독교상담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만연하고있다.

한국성경적상담자협회 대표 사역자
미국국제성경적상담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 CO)의 한국멘토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ARM (Addicted to Recovery Ministries)의 한국대표.
한국의 알코올 약물 등 각종 중독에 관련된 전문 상담자, (010) 2252-2934

황성주 박사의 "성경 건강학" ⑱

먹을만한 것을 먹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레 11:2, 3, 7)

우리 주변에는 육식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채식을 강조하는 요즈음 세대속에 육식을 찾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경계심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식을 허용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창9:3).

그렇다고해서 성경이 모든 육식을 다 허용한 것은 아니다. 성경의 레위기는 육식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무엇이나 잘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이는 편식의 반대개념으로 골고루 먹는다는 의미에서 옳을 뿐이다.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식의 무절제한 식생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 식생활의 영역에서도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최고도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 인간에게 적합한양질의 음식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 여기에 현대의학의 결론을 4천년 앞서 제시한 성경 진리의 묘미가 있다.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이 붙들어야 할 최후의 진실(식생활의 표준)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일차적 에너지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채소, 곡식, 과일을 제시하고 있다(창1:29). 창조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들이 훌륭한 음식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성경은 굽이 갈라짐과동시에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즉 소나 양, 염소가여기에 해당된다.

굽이 갈라진 동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것은 갈라진 틈으로 땀을 흘려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굽에 의해 완전히 덮힌 발을 가진 동물은 땀을 흘리지 않으므로 노폐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저허될 수밖에 없다. 마치 옷을 꽉 껴입은 상태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에비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동물은 식용으로적합하지 않다.

새김질도 역시 마찬가지다. 새김질을 계속하게 되면 강력한 소화작용과 살균작용은 물론 뛰어난 해독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체내에 유독물질이 축적될수 있는 가능성을 초기에방지한다.

얼마 전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엄청난 양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각 동물들의 특성을 알게 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식용육에서 제외시킨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민감한사람들에게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돼지고기 등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물의 섭취를 죄악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환경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성 여부"에 달려있다. 즉 무연휘발유가 필요한 승용차에 계속 납이 함유된 휘발유를 공급했을 때 차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과 비슷한이치다.

때에 따라서는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다. 다만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식생활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구별된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대로 잘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성경은 먹을 만한 것, 최고의 정결한 에너지원을 먹으라고 권고하고 계신다. /황성주 박사 저 '성서 건강학' 중에서

"살쪄서 코고는 젊은이들 늘어났다"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젊은층이 2000년 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 젊은 층에서 비만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해 수면호흡장애와 체중증가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대표적인 증상인 수면호흡장애는 지금까지는 4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면호흡장애가 있으면 낮시간 동안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고혈압,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수면클리닉 홍승철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5세 이상 일반 시민 2537명을 대상으로 수면행태를 조사한 결과 남성 13.7%, 여성 6.2%에서 주 3회 이상 코를 고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남성 8.1%, 여성 2.8% 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면무호흡증 역시 남자는 2.9%에서 4.7%, 여자는 1.7%에서 2.6%로 증가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34세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2~3배까지 증가해 젊은 층의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번 연구에서 체중증가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는데 비만체중이 2001년에 비해 2008년에 젊은 층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면호흡장애와 체중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홍 교수는 분석했다.

홍 교수는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젊은층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북미나 유럽보다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수면건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층에서 비만으로 인한 수면호흡장애가 증가하고 있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정유진기자 uletmesmile@kmib.co.kr

祝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 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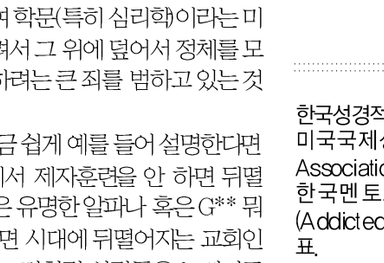
•부 목 사 : 김장성
•전 도 사 : 정원식
•원 로 장 로 : 류영근 ,강천기
•은 퇴 장 로 : 나세정
• 아래은퇴장로 : 이두길 , 정성협
• 장 로 : 유의식, 김춘웅, 김성경, 이윤곤, 전응규, 김민웅, 정건모
• 지 휘 : 임재량, 최효숙, 강정임, 강선희, 유창근
•피 아 노 : 강정임, 임사라, 윤혜림, 전보람, 김현경, 이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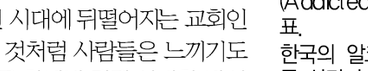
생활목표 날마다 성경읽고 항상믿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합시다.
십일조 생활로 축복받고 전도에 힘씁시다.
지역봉사 행복노인 대학(수요 일) / 무료급식(수 · 금요일)
이 · 미용 무료봉사 /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탄나누기 / 조치원 마을 도서관 운영
후원계좌
농협 455041-55-000317 / 예금주 : 조치원장로교회

예배		시간	교회학교	시간
대예배	1부	주 일오전 9:00	유 치 부	주 일오전 11:00
	2부	주 일오전 11:00	유 년 주 교	주 일오전 9:00
주일오후		주 일오후 2:00	학 생 회	주 일오전 9:00
수요일저녁		수요일오후 7:30	청년 ·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 일오전 5:00		
심야기도회		금요일오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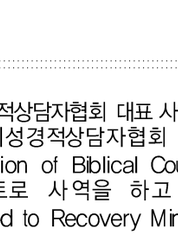
TEL : 041)865-1301 FAX : 041) 864-8255
교역자실 : 041)865-130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6-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예배안내

기 관	시 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예배안내

기관	시 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91번지
전화 031)968-0199
H.P 010-3003-7143

사랑의집교회 임직예배 드려

한석호 목사 사회로 1부 예배 진행

(좌)담임 황귀례 목사 (우)전상권 장로.

예수교대한감리회 사랑의집교회(담임 황귀례 목사)는 3월 21(주일) 오후 5시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소재에서 장로장립 임직예배를 드렸다.

한석호 목사(성문교회)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고상훈 목사(석남제일교회)의 기도, 김홍규 목사(제자교회)가 성경말씀(벧전5:1~6절)을 봉독하고, 이인순 워십팀의 찬양이 있었으며. 감독 김창기 목사(충주감리교회)는 "장로의 자세"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장로의 직은 자원하는 직책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로장립에서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밀알교회)는 임직자 전상선 권사를 세워 서약하고, 안수위원의 안수기도가 있은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상권 씨가 장로가 된 것을 공포하였으며, 선교사 권성자 목사가 권면했다.

또한 감리회신학교 학장 손선영 목사(기념교회)가 축사를, 이인순 워십팀의 축가가 있었으며,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가 교회에게 기념품과 꽃다발 증정이 교환되었다. 이어 임직을 받은 전상선 장로는 "귀한 임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임직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숱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위에서 끊임없는 격려와 채찍의 손길들,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의 손발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 봉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하고 답사를 했다.

담임 황귀례 목사가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성영길 목사(도화성민교회)축도로 마쳤다.

이날 담임 황귀례 목사는 전상권 장로의 부인이며 JTN방송 지저스타임즈의 운영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있는 전상권 장로.

안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문규 목사 사랑의 교회 입당예배 드려

대전에서 15년간 목회에 힘써

입당예배 특송을 부르는 집사님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담임 신문규 목사) 입당감사예배가 지난 3월27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소재에서 드려졌다.

담임 신문규 목사(사랑의교회)는 대전에서 15년간 목회에 힘쓰는 가운데 대전신학교와 복지학교 학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켜왔다. 또한 부산디지털대학교 대전분교를 세워 학장으로서 중구권지역 선교활동을 해온지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마디로 열정이 넘치는 교역자요 교육가다.

신 목사는 그동안 건강악화로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과 대 수술을 받았으며, 게다가 단뇨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힘들게 살아왔다. 하지만 신 목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정림동에 사랑의교회를 세워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다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동안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입당예배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또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라고 말한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십자가에 불을 밝히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기다리며, 새벽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도 기쁘다고 말한다. 합병증으로 사선을 넘는 고통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다시하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감사드리며 사역에 힘이난다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목회에 힘쓰겠다고 한다.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 주신 기회를 교육관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문화센터로 개방할 것이며 복지 목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사랑의교회 입당예배에 담임 신문규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신기범 목사가 기도를 하고, 류형식 목사는 시편27편 1~6절의 말씀을 인용 "내 생명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강명환 목사가 봉헌기도를, 노회장 성실환 목사, 이충만 목사, 정기남 목사(JTN방송, 지저스타임즈 대표) 등이 축사를 하고, 증경총회장 이태랑 목사 축도로 마쳤다.

(좌)담임 신문규 목사와 인터뷰하는 본지 대표.

예배 후 순서자들 기념촬영.

기독법조인회, '반기독교 활동' 대응

'조두순 사건'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제재 추진

한국기독법조인회(AK, 총재 전용태, 사무총장 심동섭)는 사이버상의 반기독교 활동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AK는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직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반 기독교 활동의 주요인물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K는 반기독교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두순 사건'을 꼽았다. AK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얼마 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범인이 목사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허위사실이 '매일경제'에 오보가 되어 비기독교인은 물론 많은 기독교인조차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오보 사건이 단순한 착각이 아닌 계획적인 조작에 의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K는 "이에 대하여 일련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많은 교계의 의뢰를 받고 저희 AK 회원 변호사님들을 통하여 이러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반 기독교 활동의 주요인물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K는 아이티 지진 피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장합동NGO〈해피나우〉의 현지 공장 설립 등 관련 현지인 기독 변호사를 연결해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을 도왔다. AK는 앞으로도 NGO 및 선교단체들을 위한 법률지원 및 자문서비스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K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계절학기 강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영문 계약서 소개, 법경제학, 지적재산권법, FTA, 보험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K는 매주 월요일 저녁 사랑의교회 법조인 선교회 사무실에서 영어 성경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예비 법조인, 사법연수원생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祝 부활

축 전상권 장로 임직
예수교대한감리회 사랑의집교회

2010년 3월 21일(주일)
전상권 장로님의 임직을
담임 황귀례 목사 외 교우일동
축하드립니다.

▣ 매주 화,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심속의 실버타운
(노인장기요양, 주 · 야간 및 단기보호)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에서는 간병 청소, 목욕, 말벗, 급식, 외출동행 등
-전문봉사 : 이 · 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사랑의집교회(노숙자쉼터 · 무료급식)
주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102-13
전화 : 032)524-6884 팩스 : 032)508-2838 H.P : 010-4423-28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 재 갑 목사
(본지,JTN방송 운영이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전화 02)938-3521,
016-228-35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 이 중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현병우 목사의 구원론 〈9〉

예수님의 보혈 V-1

히12:24-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본문 말씀의 은혜를 알려면 앞장에 있는 히11:4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히11:4-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나은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다르며 그 예물은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아야 되겠으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신 말씀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창4:1-2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라 하였습니다. 창4:3-5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창3:6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실 물과 피를 흘리실 때 까지 창3:22)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린양(예수그리스도)의 피에 희게 빨은 깨끗한 세마포를 예표 하셨습니다. (계7;14, 계19:7-8, 계22:14) 가인과 아벨은 아비 아담에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들었을 터인데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예물과 함께 열납 되었습니다. 예물만 열납 된 것이 아니고 아벨 또한 열납 하셨다고 합니다. 즉 양의피로 아벨의 육체의 허물이 사함 받았으니 예수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육체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양의 피와 기름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실 예수그리스도의 예표였으니(고전6:7) 예수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아니고는 어떤 죄와 허물도 사함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물과 피만 요구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가인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은 제사에 합당치 않은 예물이었고 그 합당치 않은 예물은 열납하지 않으셨고 그 합당치 않은 예물로 말미암아 가인 또한 열납하지 않으셔서 육체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이땅에 사랑으로 뿌리신 예수의 물과 피로만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 부시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장기 기증이나 어떤 사회봉사 또는 교회봉사 평생 벌어 모은 물질기부 등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또한 악에 악을 더하여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아우 아벨을 들로 유혹하여 내어 돌로 쳐 죽임으로 의로운 자의 피를 땅이 받게 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무소유 신드롬에 빠진 언론들

지난 3월 11일 불교계의 유명한 승려(스님)가 열반(별세)하였다. 언론에서는 그 사실을 대서특필로 다루었다. 법정 승려에 대한 신문기사는 '위중하다' 는 내용과 함께, 3월 6일부터 등장하였다. 지난 해 김수환 추기경 선종(별세)과 함께 개인 인물로서는 대단히 많은 양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3월 6일 병상에서의 보도부터 다비식을 마친 13일 이후에도 언론의 보도는 계속되었다. 3월 6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보도된 분량은 신문의 대형 판으로 치면 37개 면을 차지하는 정도가 된다.

이 기간에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 10개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횟수는 137회이며, 전체 면적은 70,003㎠를 차지하고 있다. 보도형태를 보면, 사설이 6회, 칼럼이 14회, 일반보도가 117회를 기록하고있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곳은 조선일보로 12,611㎠를 보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신문으로 8,705㎠를 보도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중앙일보로 8,309㎠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경우 베를리너 판으로 타 신문들이 대형판인 것과 비교하면, 약 30%가 줄어든 비율로 볼 때, 서울신문보다 많이 보도한셈이 된다.

그 외에도 한국일보가 8,255㎠를 할애하고 있고, 한겨레가 8,145㎠를 보도했으며, 경향신문이 7,979㎠를 보도하였고, 동아일보가 7,502㎠를 보도하였다. 그밖에도 비교적 적게 보도한 신문으로는 문화일보가 4,206㎠를 보도하였고, 한국경제가 3,260㎠를 할애하였고, 국민일보는 1,031㎠를 보도하고 있다.

사설로도 보도한 신문은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다. 외부와 내부의 칼럼을 게재한 경우로는 한국일보가 4회로 가장 많고, 서울, 조선이 각각 3회씩, 경향이 2회, 동아와 중앙이 각각 1회씩이다.

한 종교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무소유' 였다. 이 말에 언론은 깊이 매료되었고, 어느 종교 지도자의 죽음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에 열중하였다. 언론은 무소유를 증폭시켰고, 그 보도는 우리 사회에 무소유 신드롬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뭔가 과유불급(過猶不及)과 같은 묘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고인은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하여, 의례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심지어 당신이 출판한 책에 대해서도 절판을 당부하는 등 '빚' 을 남기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보도는 고인의 뜻을 생각했다기보다 호들갑을 연상시키니 웬일인가?

'무소유' 는 한 사람이 남긴 삶의 행적으로는 아름다운 덕목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무소유의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소유가 있음으로 나눔도 가능한 것이고, 베품의 순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경쟁적 보도의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종교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려 한 것을 인정하기 위함으로 본다. 둘째는 그럼으로 이를 개인과 종교인들이 닮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본다. 셋째는 우리 사회의 '과소유' 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언론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7개면에 달할 정도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의미를 충족시키기에는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이를테면, 고인의 젊었을 때 모습이라든지, 출판사들의 동태라든지, 암에 왜 걸렸느냐, 신문을 넣어 준 40년 전의 소년을 찾는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사족(蛇足)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고인의 고매한 뜻에 동의하여 보도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사소한 주변 이야기를 보도거리로 삼아, 억지로 지면을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자와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삶의 내용이지, 시시콜콜한 주변 이야기를 모두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인에 대한 보도의 균형이 늘 기울어져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교계에서는 제법 이름난 지도자들이 별세하였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별세)하였고, 기독교계에서는 정진경 목사, 김준곤 목사가 소천(별세)하였다. 그 때의 보도를 비교해 보아도, 한쪽에 너무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를 천편일률적으로 다루기에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한국교회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종교 지도자 못지않은 것을 감안하면, 너무 불공정한 것이다. 당시의 두 분 목사의 보도를 보면 각 신문마다 단신 기사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서 그 실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분들은 '무소유' 나 '바보의 삶' 못지않은 정직과 성결한 삶을 살았고, 사회 각계에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시킨 분들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너무 제한적이고, 지극히 지면을 아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다.

언론의 보도에도 일종의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법정 승려(스님)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그 분이 개인으로 혹은 종교인으로서 훌륭한 덕목을 보여준 것에 대한 예찬도 중요하지만, 언론들이 신드롬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스스로 도취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본 받음' 에 대한 식상함이 들고, 언론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떨어진다.

무조건 경쟁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한다고 하여, 언론 수용자들이 모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언론 수용자들에게도 뭔가 여백과 같은 것을 남겨 주어야 한다. 그저 보도의 홍수를 통해 '보았으니 됐지' 라는 식보다는, 공감의 여지를 통해 음미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메콩강공동체 태권도대회 개최

태국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열풍 선교활동에 새로운 돌파구 열려

태국 치앙마이 도지사 배 태권도 대회가 메콩강 공동체(이영진 선교사)주최 및 주관으로 지난 3월 27일 센탄 백화점 스카이홀에서 개최되었다.

메콩강 공동체에서는 1993년도부터 태국 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태국 내에 18곳에 태권도 수련원을 열어 태권도를 전파하고 있고, 위양빠빠읍내 소재의 초·중·고등학교(학생 약 1800명)가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태권도를 통하여 도심 내에 교회개척 사역(교회의 자립)에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치앙마이 도지사 배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 메콩강 공동체는 지금까지 5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첫째 공주컵 태권도 대회 3회, 둘째 메콩강 공동체 배 태권도대회 1회, 셋째 치앙마이 도지사 배 태권도대회 1회를 통해 태국 청소년들의 태권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태국 전역에 태권도 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 대회 개, 폐회식과 대회 중직,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태권도 대회의 개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JTN방송 본지 치앙마이 전승주·손호자 기자(선교사)

국부협 제18회 국민조찬기도회 열어

지역과 교파 초월, 영적 각성 운동에 앞장서… 난관극복에 지혜 모아야

국부협 국민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교파를 초월하여 사랑실천을 다짐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제18회 국민조찬기도회가 12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교계 지도자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심 기도회를 가졌다.

국민조찬기도회(회장 고충진 목사)와 국부협(총재 엄신형 목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과 교파를 초월,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 사랑 실천과 영적 각성 운동에 앞장서고 난관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특별찬에는 안양성산교회성가대가 맡았으며, 국부협 상임회장 오범열 목사(안양성산교회)는 '신앙의 거성'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족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며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행하는 데 앞장서는 크리스천이 되자" 며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한재근 박만규 최창순 이영희 임흥식 곽명주 김형섭 장대수 정광재 이준영 남준희 목사 등이 초청돼 기도회 순서를 맡았으며, 김인순 선교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 "제19차 국민조찬기도회는 6월 11일에 있으며, 4월 19~21일 3일 동안 전남 신안군의 화도와 임자도, 증도 등에서 국내 성지순례 및 나라사랑사명자기도회를 갖는다" 고 밝혔다.

/성순희기자 cpj01@naver.com

영화 '회복', 세계 다큐멘터리 시장 진출

3월 10만명 관객, 부활절을 맞은 4월 20만명 돌파 가능

영화〈회복〉 포스터

한국이 제작한 기독다큐멘터리영화〈회복〉이 지난 19일 9만 3천 766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의 관객을 기록, 3월 10만명, 부활절을 계기로 4월은 단체관람 등을 고려할 때 2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종교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새로운 기록이며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국인인 한국인 감독이 이스라엘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회복〉의 소문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전역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모나코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칸느 영화제에서도 러브콜을 보여와 다큐멘터리영화와 신인감독 부문에 출품했다

한편 일본계 미국인이자, 유대인인 피터 추카히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 〈하나님의 쓰나미〉가 출간된 일도 일본인, 미국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회복〉에 대한 개봉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회복〉의 제작사 이임주 대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하면 아랍권과의 싸움만을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의 뿌리 깊은 갈등을 알게 돼 놀랐다" 며 "한국이 왜 이스라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중동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봐야하는 가치 있는 작품" 이라고 밝혔다.

이 영화가 관심을 끌게 된 첫 장소는 지난 3월 3일 이스라엘의 감람산 건너편 지역 '숙갓 할렐' 에서 첫 시사회가 열리고 난 뒤이다.

그 이후 영화 〈회복〉에 대한 관심 전 세계적으로 더욱 커졌다.

정통유대인들에게 아들이 폭탄테러를 당하는 장면의 모티브로 등장하는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는 그날 있었던 시사회에서 "테러 용의자가 2년 넘게 잡히지 않다가 한국의 촬영 팀이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 사건을 취재하고 나서 2주만에 체포되었다" 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우리가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범인을 용서한다. 나는 단지 그가 예수를 믿기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그날 함께 관람한 하워드 베스 목사는 "5년 전 브엘세바 교회에 3백여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방 법원이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지방에선 메시아닉쥬를 향한 핍박이 여전하다" 고 전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메시아닉쥬는 유대인과 유대교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말한다. 현재 유대인인구의 2퍼센트 정도만이 메시아닉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주소서"

부활절 PPP 십자가 대행진·촛불기도회 가져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십자가를 짊어진 이)와 이 목사 좌측으로부터 김영진 장로, 황우여 장로, 김성종 장로, 장헌일 장로, 이 목사 우측은 이영훈 목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2010 부활절 PPP 십자가 대행진 및 금식 촛불 기도회' 가 2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광장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전용태 장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한일기독의원연맹 지도목사, 새에덴교회 당회장), 전병금 목사(강남교회), 최규식 장로(민주당기독신우회장), 전혜숙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기독인회 총무)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및 정치인 그리고 200여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PPP 십자가 대행진을 10년째 진행해온 준비위원장 김영진 장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정치와 외교만으로는 풀 수 없다." 고 말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우리도 본 받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를 전하는 자들이 되자." 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여야 기독의원들은 한일기독의원연맹의 이름으로 일본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목회자연합회(회장 박무평 목사)는 인천지역 목회자와 성도 3백여명도 인천 시청 광장에서 만수감리교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화해와 연합을 위한 십자가대행진' 을 펼쳤다.

또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평화와 통일의 향유를 부어주소서" 라는 헌시를 낭독하고, 일본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며, 검정결과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독도관련 성명서를 낭독했다.

소진우 목사, 장암지구에 예복교회 새성전 건축

예복교회, 새성전 기공식 토대로 한국교회의 중형교회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황무지가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삭막하고 황폐하여 무너진 성읍들이 견고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할 것이다".(겔36:35)

"상계-장암지구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새성전을 건축하는 기적"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땅,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산 기도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자리임을 확신을 가졌으며, 밤마다 기도하면서 또는 주일 설교에도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라며, 성도들로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주문했다.

온 성도들과 교역자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계동 장암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영광스러운 기공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황무지가 변하여 사람들이 살게 되는 아파트 중심지역에 감격스러운 예복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소진우 목사)는 지난 3월19일(금)오전11시30분 상계 장암지구 아파트 입주단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새성전을 건축하는 기공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소진우목사 사회로 오봉석 목사(대광교회)가 기도를, 인도자가 성경(왕상 9:1~2절)을 봉독한 후 차이경 집사의 특송이 있었으며, 윤호균 목사(화광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박우성 목사(큰소망교회)축도로 마쳤다.

이어 건축위원장 전승길 장로의 인사와 담임 소진우 목사가 건축을 맡은 시공사 (주)가손회사를 소개하고, 서용봉 목사(상록중앙교회)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이석용 목사(영훈교회)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진 기공식에서 내빈과 건축위원이 함께 줄을 잡고 컷팅을 하였으며, 시삽에서는 성도들도 자리를 같이하고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에서 첫 삽을 뜨는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다. 건축위원 총무 문병선 집사의 광고에 이어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날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지하2층 지상4층을 건축한다. 지하1층은 발코니석, 자모실, 조정실, 로비, 새가족교육실, 창고가 들어서며, 지하2층은 본당, 준비실, 새신자실, 저수소 펌프실, 창고 등이, 지상1층은 북까페, 주차장, 지상2층, 중예배실 좌석110석, 소예배실 좌석80석, 사무실, 부교역자실, 지상3층 소모임실, 게스트룸, 목양실, 재정부실 등이, 지상4층, 식당, 주방, 창고, 방 등이 들어선다며, 많은 기도를 주문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담임 소진우 목사

컷팅을 하고 있는 내빈과 동역자.

기공식 시삽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내빈.

기공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인·터·뷰

-기공예배를 드리기까지의 특별한 목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복교회는 목회자 자신부터 온 성도들이 2010년 3월 현재 16년 동안 365일 매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감격스러운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복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있는데 그 비결은?

▲예복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방침은 오직 기도입니다. 열정을 가진 기도로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은 함께 뜨거워지고 그래서 복음전파에도 온 힘을 쏟는가 하면 담임목사의 대외적인 목회활동에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비결은 역시 기도로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365일 매일 밤 9시부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듭니다. 예복교회의 특징은 부교역자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열심을 다해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로서 불가마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기까지는 분명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각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충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성도들은 해외 선교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는데?

▲말씀과 기도로 단련된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또한 교회가 지원하며 후원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선교 불모지역의 복음전파를 위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안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과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끝으로 각자 자신의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외부 집회 인도로 활동이 많은 담임 목사를 위하여 매일 매일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성장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은 축복대성회로 성도들의 영적성장과 영성훈련을 위하여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특징은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반복, 선포하는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성회복과 성도들의 영적관리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인 상태를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지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막을 것은 막고, 푸는 것은 풀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 때에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회복과 축복을 누리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예복교회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많고 해외 선교지에도 1년에 한 교회 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데?

▲사실 저의 교회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집회를 통해 간경화로 종합병원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판정을 받았던 26세의 자매가 집회 첫날부터 참석하여 말씀에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복수도 차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적인 자랑이 있다면 예복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70세 이하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사망한 성도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대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담임목사인 저의 목회방향에 온 성도들이 잘 따라주신 결과요, 말씀을 기초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이 무엇임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날 새성전을 건축하는 기공예배를 드리기까지 단 한 차례의 잡음과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과 성도들도 큰 자부심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의 순종하는 마음, 교회의 평안한 모습들은 교회의 꾸준한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봅니다.

-예복교회가 국내외 선교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저의 교회는 성도들이 참 자랑스럽고 예쁩니다.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절대 교회 중심, 위계질서 존중, 나눔 실천의 생활화, 치리에 절대복종의 생활수칙과 예배생활 선교활동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고 있지요, 축복생활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국내 외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외 선교지에 1년에 한 개씩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계획 아래 실천에 옮기고 있구요, 이미 인도에 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예복 예수복음교회란 이름으로 교회와 현지인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중국에도 교회를 건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예복교회 청년 출신 선교사를 파송하여 3년간 언어훈련에 집중하도록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또 다른 의료선교사에게는 스타렉스 차량을 지원해 소외된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를 펼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주안에도 예복교회를 세우고, 국내 여러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자선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섬김과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

▲14년째 봄과 가을 매년 두 차례에 거쳐 실시하는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불우이웃돕기와 국내외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북부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교회는 파워전도 팀을 구성해 이들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인근 지역을 돌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종 문화사역 등을 통해 이미 교회의 소문을 들은 지역 주민들은 받아든 전도지를 갖고 있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민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 위로와 해결함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회관과 비전을 정리해서 말씀한다면?

▲제가 2010년 3월에 교회설립 16주년이 되었으며 동시에 단독목회 21년째가 되고 현재 세분의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섬김으로 오늘의 예복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목회자가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것, 최선을 다한 사역 이것이 저의 목회방향이요 비전입니다. 예복교회는 목회자가 현장목회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는 나라와 민족, 교인들의 가정, 교인들의 사업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인들은 여기에 힘을 얻어서 교인들 모두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에 앞장서며, 건축헌금을 드리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성전 건축 시공감사예배를 드린 우리 지역은 지역주민과 교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선교센터를 약속했습니다. 저의 목회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순리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예복교회가 새성전 기공식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중형교회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자는 기도합니다. 소진우 목사는 교회의 예산과 홍보비의 예산을 아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제 3세계민족의 선교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제3세계 선교는 현장의 선교사들을 후원, 이들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소진우 목사는 목회자들과 함께 열방부흥선교를 조직해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 로고스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예장 백석총회 평북노회 노회장이며, 동 총회 부흥사회 상임회장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지저스타임즈 및 JTN방송(WWW.JTNTV.KR)사장과 CBS TV와 극동방송 등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祝 부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그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복디자인하라!

담임 소진우 목사
(JTN방송 지저스타임즈 사장)

전화 02)3391-9676(대)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 장창수 목사 (웨신총회, 증경총회장)

-장로 :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 447-140)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1-1
전화 : 031)373-1151, 377-9372
팩스 : 031)372-258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 승 현 목사
(본지, JTN방송 논설위원)
부설/평안 E.C.I
-무료 생활영어회화 강습.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상설 알뜰바자회 주관/여전도회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갑니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춘천 특급 강조망
명품 땅 마지막 기회!!!

㈜해피웍은 시행 및 시공업체로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꿈과 낭만, 희망의 도시, 박사마을로 유명한 춘천 서면에 투자가치가 보이는 명품 전원 주택지를 특별 분양합니다.

▷부지내 6m도로 공사

▷남동향의 배산임수형의 단지형부지

▷도심권 7분거리(도청, 대형마트, 대학병원등)

▷토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필요

▷주변시세 평당 150 ~ 300선(허가득)

▷본 필지는 15도 미만의 완만한 구릉지로 전필지가 강조망 확보 서면 유일의 단 지형 전원주택 부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 투자가치가 뛰어남.
※ 양평, 청평, 여주 지역과의 비교 거부.

3.3m²당 A Type 58만원 , B Type 65만원 , C Type 75만원
▲신청금 : 100만원 (미계약시 신청금 당일 전액 환불)
▲예금주 : 하준식 법무사 (농협 : 351-0138-6946-13)
※방문 계약시 계약금, 도장, 신분증 필요합니다.

– 책임등기 : 하준식 법무사 – 측량/인허가: 삼원 기술단

상담 및 분양문의 : ㈜해피웍 대표전화 (02) 539 – 2008